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함께 행복한 제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본부 1주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가 7월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등 도내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42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

로 했다.

또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공유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홍보와 인구교육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한 자녀 더 갖기 홍보대사' 4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관련 도민과의 사이버 소

통공간이 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 홈페이지 개통식도 가졌다.

고신관 공동의장(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저출산 대책 또한 정부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여성만의 책임도 아니어서 누구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여성과 가정에 의존하는 출산정책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전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기 좋은 제주 만들기 위한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동본부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유리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행복한 우리가족 그림공모전 입상작



배너와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제주 3·30 공동육아운동 실천 1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도 전개됐다.

식전·식후행사로는 3대 다자녀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이 행사장 주변에 전시된 사진공모전 입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위) 식후 행사로 마련된 3대 다자녀 가족 및 어린이 합창단 공연에서 다슬이 가족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아래)



도사회복지협-근로복지공단 사회공헌활동지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이찬희)는 7월 27일 사회공헌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겨울병을 여름에 고친다

드림스타트 아동 무료 한방진료

제주시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사업의 일환으로 용담 1·2동 저소득 아동들에게 오는 2일부터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만 1세~5세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비염·천식·잦은 감기 등 호흡기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으로, 기혈이 왕성한 여름에 할지리를 따라 삼복첩 패치를 붙여 약이 피부를 통해 경락으로 스며들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실시된다.

또 아동의 체질 및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음료(약선)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함소아한의원 제주분원에서 3년째 도움을 주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성폭력예방 대책 수립 촉구
시설 탐방-행복나눔

■ 사회복지소식 4·5면
저소득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1회 시사랑축제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싱글맘과 혼외의 자 인권 세미나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인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별거 아닌것 같으면서도 참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기획을 해야 하는데 자료도 변변치 않고 조연자도 없고... 기획, 디자인, 출력, 제판, 인쇄...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선진인쇄사에서는 One-Stop System 고객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인쇄 · 출판의 자존심



선진인쇄사
도서출판 열림문화



대표 강규진
(제주도인쇄조합 이사장)

• 전 화 : (064)757-4437, 755-4856 • 팩 스 : (064)721-4855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 수립 촉구

제주도의회 결의안 채택...“제주사회 새롭게 만들자”

최근 도내 학교 안팎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7월 23일 제27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방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양한 방법의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학교 주변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를 나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학교 주변 CCTV 확대,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교육과 보육지원 등 민관 협력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전국 평균까지 확보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내외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관리 ▲학교내 취약요소 및 유해환경 등 위험요소 파악 ▲지역과 학부모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다 함께 예방중심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제주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道 노인복지관 어르신 동아리 ‘활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사물놀이 동아리, 수화동아리, 혼디봉사단 등 3개 동아리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16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동아리는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지역행사와 경로당 등을 방문, 공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중국 방문단 환영행사와 용머리에술단 5주년 기념 특별

공연 행사 등에 초청받아 공연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수화동아리는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전도 수화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매주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올레길과 오름 정화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혼디봉사단 14명은 용눈이 오름 정화활동, 노인체육행사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제주도는 어르신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경륜과 삶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노인복지관 8월 개관...태고복지재단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노형동 기적의 공원에 신축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월 14일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응모법인 7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부담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비롯해 법인의 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태고복지재단을 선정했다.

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된 제

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부지 1928㎡, 연면적 1319㎡(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갖췄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 부모교육 실시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관장 경운호)는 7월 3일 강현희 원장(출판기획 앙팡페 율타리 원장/독서를 통한 마음지기, 리딩큐어 원장)을 초청, ‘책, 내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는 정서행동, 인지, 언어,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치료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모교육은 이를 위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해 이뤄졌다. 강 원장은 지역 주민과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하며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치매무료검진받으세요”

道,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해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2억6100만원을 투입,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1차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의심 노인은 치매거점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2차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치매거점병원과 보건소의 사례관리(진료, 방문간호 등)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는다. 필요할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안내, 인식표(명찰) 보급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또 올해부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환자로, 도내 전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도내 보건소 등에는 치매환자 1314명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아라복지관 정보화 교육생 전국대회 대상 쾌거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2010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제주지역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정술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최한 어르신 정보화제전에서 3부문(55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을 수상했다. 강택진씨는 2부문(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장려상(3위)을 수상했다. 김씨



와 강씨는 제주지역대회에서 같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또 문길성씨는 제주지역대회 2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독거노인에 사랑나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지부장 부영재) 조합원들이 소외된 독거노인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서귀포시지부는 7월 16일 상반기 동안 모은 후원금으로 보행보조차 4대, 실내용 좌변기 8대를 구입, 관내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서귀포시지부는 서귀포시독거노인one-stop지원센터(관장 임철남)에 월 2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서귀포시지부와 서귀



포시독거노인one-stop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제가결연후원	750,000	75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1,570,000	1,570,000
복지사업후원	1,407,614	1,938,070
푸드마켓후원	1,475,000	535,15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3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우리 함께 행복을 나누어요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7월 중순,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원장 백인협)을 찾았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이곳은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의 조기교육, 전문재활치료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립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부모 및 가족들에게 가정교육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물리치료사로 30여년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백인협 원장은 공부를 위해 병원을 퇴사한 후 서귀포온성학교(특수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맺은 장애학생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지인의 권유가 시설운영의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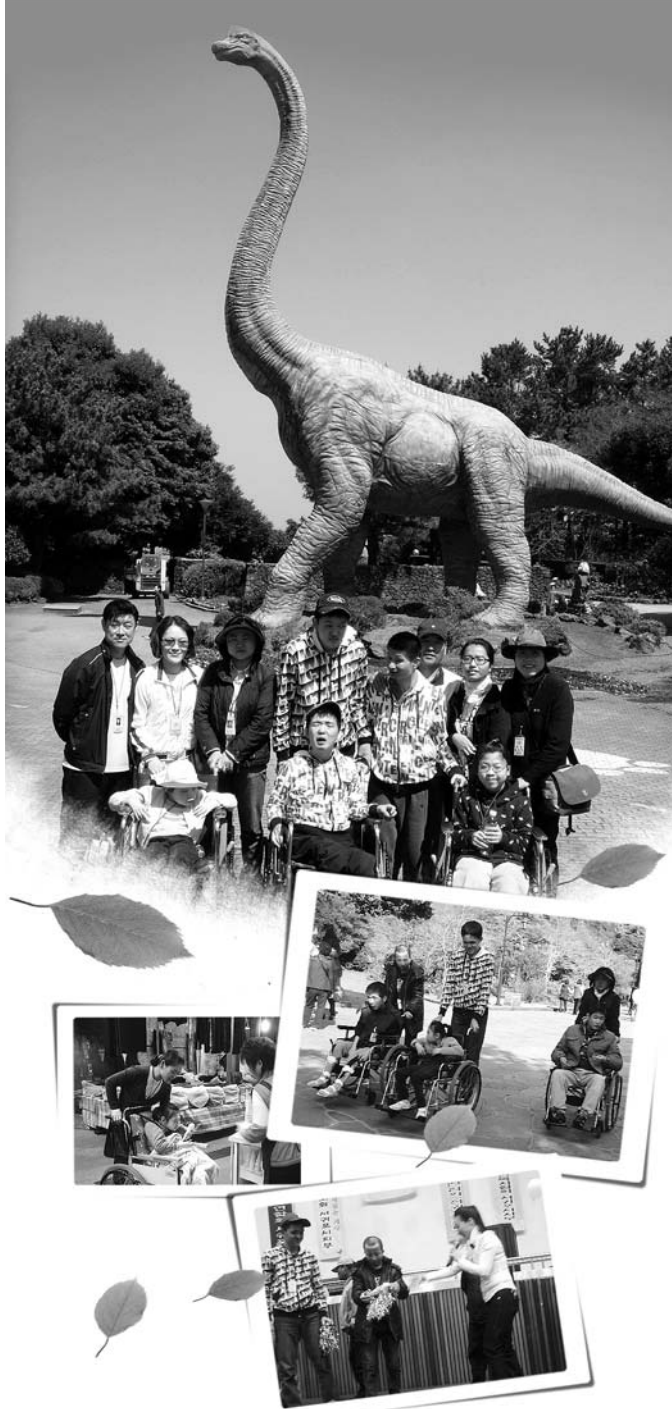
7월 현재 9명의 장애인이 이용(주간, 방과 후)하고 있는 이곳은 전용면적 165㎡ 규모에 편의시설은 물론 상담실과 수면실,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치료사(언어·미술·음악 등)가 상주해 장애인을 돌보고 있어 개별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감각능력, 지각능력, 상상력 향상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 ▲신체적·정신적 기능 증대 ▲의사소통능력향상 ▲신체운동능력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반복동작훈련을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놀이활동을 통해 재미와 호기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비만 및 성인병 예방, 장애특성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환별 정기검진, 내원진료 및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승마, 바다낚시, 곤충채집, 갈매기잡기, 조개잡기, 산나물 캐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공서와 방송국을



장애유형에 맞는 재활치료 가능

찾아가 견학도 하고 오름등반에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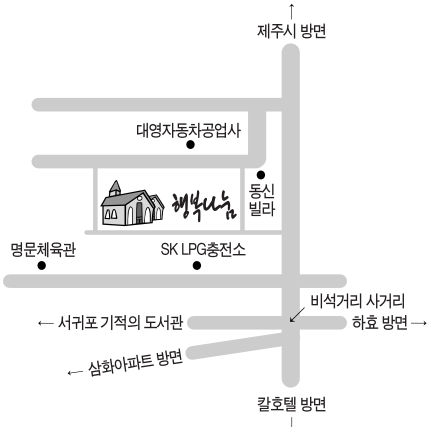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문화축제에 참여하거나 영화·전시관·박물관 관람 등을 주 2회 이상 하며 세상 밖 경험도 하고 있다.

문을 연 지 1년이 채 안된 신생시설이다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생 이 길을 걸겠다는 백 원장은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면 장애인 가정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할 것”이라며 “많은 장애인과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량운행으로 시설 이용시 입실 및 귀가를 지원하고 있는 이곳 ‘행복 나눔’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733-6799.

〈조순옥 명예기자〉



보건복지여성분야 회의 '현장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8월부터 현장중심의 회의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와 행정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공동전략회의를 통해 조직내부 소통을 강화하면서 현안 해결 능력 증진대화를 실시한다.

우선 이달에는 ‘공공보건의료인 회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다. 9월에는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며, 10월에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회장, 읍·면 분회장, 지역별 경로당 회장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이르신 회의’를 열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1월에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을 맞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예방 및 추방회의’를 개최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를 할 계획이다.

또 공직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도+행정시 공동전략회의’를 이달부터 격월 단위로 도와 행정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10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환산한 뒤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일석이조'

대하읍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의 ‘취약계층 청소년 음악멘토링 서비스’ ▲제주한라대학 ‘그레이스 실버 청년사업단의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 ▲제주산업정보대학 수중운동 청년사업단의

‘예방에서 재활까지 수중운동 서비스’ 등 총 3개 사업이다.

올해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6월말 현재 84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607명과 57명을 웃도는 것으로, 대학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잠재력이 확인됐다.

저소득층정부양곡 50% 할인

제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가구 중 희망가구에 한해 매월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가구 ▲지난해 6월 30일 현재 기존 차등보육료(교육비) 2층 대상자이면서 보육료(유아학비) 100% 지원가구 ▲지난해 6월

30일 현재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5세 이하 교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정부양곡 가격의 50%를 제주시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10일까지,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는 매월 26~31일 사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곡은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며, 택배비는 제주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해바라기아동센터, 공감능력 향상 정서지원 프로그램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 상담팀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전 사후로 심리검사와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 프로그램', '세상속의 나 프로그램'이 주 1회 24회에 걸쳐 진행된다.

최병분 사회복지사는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는 힘은 약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감정이나 무의식을 감추려는 방어적 태도가 적기 때문에 미술활동과 같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그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이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치료는 방어를 감소시키고 미술활동의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 시키며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약점보다는 강점에 근거해 좌절감을 덜 느끼게 하고 언어표현, 자아표현에 도움이 된다"며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박미란 센터장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주위를 맴돌기만 하며 좀처럼 진행이 어려울 듯 보였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며 "비언어적 수단인 미술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나와 타인의 감정을 탐색·인식하게 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이해, 공감능력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청토를 이용해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가 다양한 과자조각으로 만든 작품.

향상 및 긍정적인 미래상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의 잠재적인 강점을 찾아주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아성정을 이루어 보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자녀 심리유형을 공유하며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연말에는 작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소영 명예기자〉



성지요양원 송창권 원장 취임

성지요양원 제2대 원장에 송창권(45)씨가 7월 1일 취임했다.

송창권 원장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이사과 제주시태권도협회 부회장, 제주4·3도민연대 운영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10 여름 김장나누기

현대하이스코(대표이사 김원갑) 주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구세군 서귀포나눔의 집(대표 손홍수) 주관으로 '2010 여름 김장나누기' 행사가 7월 6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하이스코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600포기를 담가 150가구에 전달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죽원 직원역량강화 세미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6월 23일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죽원 체육관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복지부 송한목 서기관이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맞춤형 기능 조정 방안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소/식/마/당

가정위탁보호 홍보 캠페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7월 14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음악분수대 인근에서 친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선 가정위탁보호사업 거리상담실 운영과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졌다.

제일드래곤즈경찰청야구단협약



7월 16일 제일지역아동센터 소속 제일드래곤즈 야구단(대표 박영식)과 경찰청야구단(감독 유승안)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청야구단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미래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지속적인 물품 지원과 제주도 전지훈련 때 야구클리닉을 개최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여고합창단 초청 연주회



무지개지역아동센터(센터장 오효선)는 7월 17일 토평교회에서 42회 서울정신여고합창단(지휘 박영주) 순회연주회를 마련했다.

무지개지역아동센터는 서귀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9곳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초청, 목장길 따라 등 다수의 곡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7월 1일 노인연극단인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연출 김광홍) 발대식을 가졌다.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연극 연습을 실시한 뒤 10월과 11월에 총 8회의 찾아가는 무료 연극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경마본부, 제주양로원서 봉사활동



KRA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본부장 남병곤)는 6월 30일과 7월 15일 2회에 걸쳐 제주양로원, 제주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주경마본부 시설팀 직원 20여명은 건물 외곽 유리창 물청소, 진입로 잡초 제거, 전지작업, 에어컨 점검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창암재활원 생활인 새연교견학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6월 20일 제주시탕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서귀포에 위치한 새연교와 해군함정을 견학했다.

심신이 불편해 외부와의 접촉 기회가 적었던 창암재활원 생활인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의 감수성 자극한 시사랑축제

요즘 시 한편 읽어 보셨나요?

누구나 한번쯤 학창시절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거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답답함이 쌓일 때면 그것들을 풀기 위해 시를 읽거나 쓰면서 위안을 얻고 다시 마음을 다지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시를 읽거나 혹은 쓰는 사람을 보면서 팔자 좋은 사람이나 쓰고 읽는 것으로 치부하며 시가 주는 참된 의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뜻 깊은 자리인 시와 음악이 흐르는 '제1회 교육복지와 함께하는 시(詩)사랑 축제'가 7월 10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아라중학교(교장 진영부)와 신성여자중학교(교장 남승택),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가 상호 협력해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사회를 본 김세나(화북초 6년) 어린이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당히 긴장했지만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한 것 같다"며 "내년에도 축제 사회를 맡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여자중학교 김지현(2년) 양은 "소나기가 많이 왔지만 팔찌와 피자도 만들어보고, 종이를 접어 곤충도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며 활짝 웃었다.

홍영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아라중학교)는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끌어내기 위해 시 사랑 축제를 기획했다"면서 "다음 행사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해 함께 하는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의 시 낭송과 시화전 전시를 비롯해 생리주기 팔찌만들기, 곤충체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도체험, 요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양정선 명예기자〉

일배옴터 유병근씨 장애극복대상 수상

가롤로의집 이영수씨는 장애인 극복상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배옴터(원장 최영열)의 근로장애인 유병근(28· 지적장애 3급· 사진 위 두 번째줄 가운데)씨가 7월 2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10년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극복대상을 수상했다.

유씨는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속적인 평생교육활동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서 보조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일배옴터에서 원예작업을 담당, 질 좋은 원예상품을 생산해 매출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동료상담과 조력자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힘든 일에도 앞장서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가롤로의 집 이용자 이영수(31· 지적장애 3급· 사진 아래)씨는 장애인 극복상을 수상했다. 자신보다 어려운 식구들의 손발이 되어 가롤로의 집에서 만형 역할을 하고 있는 이씨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해 패밀리 레스토랑 빙스에 취직,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확대와 기관·단체 교육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6월 30일부터 3일간 '2010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가족상담과정)'를 진행했다.



소망요양원에 350만원기탁

김녕농협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은 7월 5일 소망요양원(원장 고경애)에 350만원의 성금모금액을 지정 기탁기로 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김녕농협은 '제주농협인 아름다운 기부문화 운동'에 동참,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모아 성금을 적립했다.

알/림/마/당

■ 은성복지관 2010 경제캠프 19~20일 진행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어린이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 경제캠프를 진행한다.

2010 경제캠프는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경제현상을 이해해 창의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문의=726-8388.



길정신건강센터, 아름다운 도서여행

길정신건강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자아상 회복을 위한 'From Me To M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추자도에서 '함께 하는 동반 테마여행-아름다운 도서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여행에서 참가자들은 추자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추자도 관광과 참굴비 대축제



참가 등 문화체험을 하고, 가족 교육 등을 통해 가족관계개선과 긍정적 상호교류의 장을 모색했다.



아동의 꿈을 만드는 희망콘서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7월 7일 서귀포시 새연교 광장에서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캠페인으로 '제주 아동의 꿈을 만드는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콘서트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밴드를 구성해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콘서트를 관람한 한 시민은 "굉장히 인상깊은 행사"라며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벌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희망콘서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7월 식품 기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140봉 ▲김치원=김치 75kg ▲중앙유통=채소류 300kg ▲영락교회=쌀 1000kg ▲심심부식=김치 120kg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반찬류 150kg ▲한라생협연동점 자연드림=빵류 233개 ▲현민철=쌀 80kg ▲강희은=김치 11kg ▲원석철=상추 5kg ▲제주은행=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생필품 230개, 후원금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생필품류 429개



한라원 서예작품전시회 개최

한라원 작업활동시설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지적장애인의 서예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행복한 자기표현교실'의 서예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칼럼

우리들의 친구는



김길웅

수필가·시인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전도 초중고 학생 백일장대회를 열었다. 심사를 맡아 동산만큼 쌓아놓은 응모작품을 받아 앉게 됐다. 많은 학생들이 작품을 내고 있었는데 학교 급별로 보았더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작품 수가 수백 편에 이르고 있어 이 대회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다.

동심에 비친 장애인 모습

글짓기만 아니라 사생대회도 함께 치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뜻있는 행사라 여겼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연년 치

러 온다 하므로 더욱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발달단계로 볼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들은 얼마나 순수한가. 백지에 그리고 쓴 것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된다. 무엇보다 개념을 정립해주는 데 중요한 시기다. 장애인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인가. 입으로 떠들어 뉘자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직접 그리고 써 보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적인 선도나 유인책은 없을 것이다.

작품 심사를 하다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한 초등 어린이 작품에서 받은 충격이었다. '우리들의 친구는'이란 제목의 시다.

우리들의 친구는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두 팔이 없어도/ 친구를 안아 줄 마음이 있습니다.

//두 발이 없어도/ 미래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슬픔에 동참해 줍니다.

//표정은 짓지 않아도/ 나의 기쁨에 제일 많이 웃어줍니다.

//우리들의 친구는

//우리와 같이/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꾸고/ 같은 파란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친구니깐요.

제주대부설초교 5학년 강지성 어린이의 작품이다. 얼마나 깔끔한가. 티 하나만 내려앉아도 흠이 될 것 같은 깨끗한 착상이 아닌가. 때 묻지 않은 동심에 화들짝 놀라 눈을 씻고 읽고 또 읽었다. 참 착한 어린이의 싱그러운 마음이고 생각이다.

천진한 어린이 목소리 심금 울려

바로 이거다. 글짓기 백일장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순백색 도화지에 능금을 빨갛게 마구 칠해 그리듯 원고지에다 장애인 이야기를 쏟아놓게 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사의 취지를 살리고 남음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작품은 운문(시)라, 애초 공문에 산문을 모집한다고 했으므로 입상에 그쳤지만 실은 '최우수상' 감이었음을 실토한다. 어린이의 해맑은 마음의 창에 비친 장애인의 상이 너무 천연덕스러워 할 말을 잃는다. 한 아이의 영혼의 목소리가 가슴을 때리지 않는가.

시론

잊지 못하는 감사(監査)의 추억

2000년 10월부터 23개월간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업무량이 많고 꽤나 복잡했다. 한 업무가 장애구분에 따라 지체, 농아, 시각, 지적, 신장장애 등 15개의 업무로 파생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 복지마인드가 부족하면 감당하기가 녹록치 않다.



문익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 소년과장

2001년 제주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었다. 사회복지분야 담당감사관 이름은 기억이 없고 직급은 주사(6급)로 기억한다. 그 감사관에게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감사받는데, 그중 미국에서 열린 세계 농아인 대회에 참석한 제주협회장에 지원한 보조금 1000만원이 문제였다.

감사관은 '농아협회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협회장이 대회에 가는데 2명씩이나 동행했습니까?' '협회장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뭘 말해요? 왜 혼자 못가요?'

감사관은 진정 장애인을 아는가. 나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감사관님, 농아가 어떤 장애인인줄 아십니까?' '왜 물라요? 병어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아인 혼자 수속해서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안 되나요?' '농아가 이동할 때는, 수화통역사 1명과 행정요원 1명이 필히 동행해야 됩니다. 장애인의 특성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에 대한 반항과 불쾌감의 표출이었다. 감사관은 나의 답변에 림시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다.

'그래요? 알았어요. 돌아가 계시면 또 부르겠습니다.' 두 어 시간 후 다시 호출한다.

'좋아요, 2인이 동행한 것은 그렇고, 여행일정을 보니 대회참석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캐나다까지 다녀왔는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영 감정적이다.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캐나다에 다녀온 것은 선진농아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러 장애인들을 선진지 시설 견학을 보내는데, 그런 기회에 인접국 선진시설들을 돌아본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도지사 결심을 얻은 선진지 장애인시설 견학실시계획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관은 더 따질 것이 없어서인지 '알았어요.' 하면서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문썰다고 했다. 이를 후 질문서가 왔는데 내용이 너무도 억지다. 자존심은 상하고 무엇인가를 지적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나는 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답변을 했다. '좀 알고 감사하십시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문 계장은 변명만 하고 잘못된 데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네요. 정말 그럴 겁니까?' 나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전의 정이라니. '뭘요? 저가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답변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조치하면 될 것을 개전의 정이니 뭐니. 개전의 정이 뭐요?'

이 문제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관계 기관에 탄원, 따질 심산으로 통화내용까지 기록해뒀다. 얼마 후 감사결과가 내려왔는데, 이 건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일말의 언급조차 없었다. 감사관이라면 업무를 알고 감사를 해야지. 실력과 자질 모두 부족한 것 같았다. 복지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지 1년이 넘었다. 세월이 흘러 공직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때 그 씁쓸한 기억은 복지영역에 근무하던 과거가 추억되어 현실에 투영된 때문이 아닐까.

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속반의 비애



강현수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요즘 서귀포시 곳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로 현장계도 위주로 활동을 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차량 주차행위가 근절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7~8월 두 달 동안은 집중 단속을 펼쳐 기초질서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잘 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잘못하는 걸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줄 알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해서

는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는 시민들을 대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적잖이 비애를 맞본다.

오늘도 8명의 위반자들과 입씨름을 했다. 대부분 아주 잠깐 세웠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임신부라서 그랬다 등등 그들만의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소용이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해야만 주·정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당연히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밀고 당기느라 산만하고 시끄러운 하루 일과 중 그래도 가끔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한 민원인을 만나기도 한다. 화를 내기는 커녕 사전납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는 경우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유야 어떻든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에도 앞장서는 민원인의 우아한 모습에 우리 직원들은 와~하고 탄성을 내지른다. 어떻게든 납

부를 피해 보려고 온갖 변명에 고성방가, 인맥동원, 심지어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민원인들과의 상담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휠체어를 타고 먼 길을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한번이라도 봤더라면 아마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하지는 못할 것이 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시민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주차구역 단속반도 필요가 없을 테고, 장애인들의 삶이, 서귀포 시민들의 인생이 멋지게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늘 툭툭대던 남편이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에 감동하지 않을 부인이 과연 있을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그 소박한 밥상처럼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켜 주리라 믿는다.

이번 기회에 1%의 작은 잘못을 고쳐서 장애인에게 100%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싱글맘과 혼외의 자의 인권을 위한 세미나

“미혼모 혼자 자녀 키울 수 있는 사회돼야”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싱글맘과 혼외의 자의 인권을 위한 세미나’가 7월 3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미국·캐나다·덴마크의 미혼모 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지는 엘렌 퍼나리 미국 버몬트주 아동포럼 부회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7월 3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싱글맘과 혼외의 자의 인권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엘렌 퍼나리 부회장은 “미국 의 경우 전반적인 미혼모 관련 제도와 상황이 변하기까지 약 30년이 걸렸다”며 “과거 조용히 숨어살다시피 했던 미혼모들이 이제는 그룹홈(위탁시설)이 제공하는 집중지원에서부터 더 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그들의 가족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미혼모 가정 지원을 위한 필수요소 4가지를 소개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랑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도 다른 형태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다.

미혼모는 다른 형태의 가족과 비교해 때때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와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으며,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는 관심을 기울이는 누군

엘렌 퍼나리美 버몬트주 아동포럼 부회장 발표

성공적 미혼모가정 지원 필수요소 4가지 소개

미혼모 잘 도와주려면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혼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사랑과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필요로 한다.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좋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의료지원

보건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과 건강관리법을 가르치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압력 및 원치 않는 임신 등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다. 어린 미혼모 등을 초대해 그들의 경험을 듣기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예방적 차원에서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는 미혼모를 위한 추가 방문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이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 혼자 사는 산모를 꾸준히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지역사회 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미혼모와 그 자녀는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와 미혼모 가정의 관계는 진료소 또

는 개인병원에서 형성될 수 있다. 미혼모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는 추가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임신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 미혼모에게 고등학교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자유롭게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미혼모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미혼모가 원할 경우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

직업교육이든 대학이든 고등교육은 미혼모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혼모 가정은 빈곤층일 확률이 높고 빈곤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혼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에는 수업

료 지원, 보육지원 등 미혼모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미혼모 자녀에게 있어 양질의 보육 지원과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지원시스템 안에서 미혼모 자녀는 모든 형태의 가정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엄마가 다 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감정적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정

지역에 기초한 지원기관들은 수업, 지원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사회행사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사회에 함께 동화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생각을 극복하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기관들에서 파견하는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모든 아버지과 어머니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들 부모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 활동, 다른 부모를 위한 멘토

링, 특별행사 지원, 가족정책 지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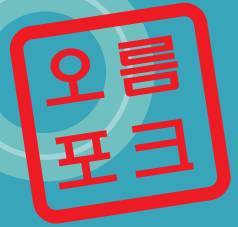
미혼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려면 경제적 안정, 살 집, 직업 또는 교육프로그램 및 친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들은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시설을 떠나야 하는 미혼모에게는 넘어서 할 큰 산이다. 출산 전부터 미혼모가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고,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은 남들과 조금도 다른 없는 ‘전형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엘렌 퍼나리 부회장은 “미혼모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잘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애서원 자원봉사자인 미셸 보발라, 덴마크로 입양된 심리학 박사 미자 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킹 권희정 사무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제주에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4명의 사례도 소개됐다.

KEUM KANG LIVESTOCK DISTRIBUTION



● 농림부 HACCP 지정기업 ● 제주도품질인증(FCG)기업 ● 농림부 CLEAN 사업장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로 고객의 식탁까지 자연 그대로를 선사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과 우수한 고품질의 축산물은
(주)금강축산유통이 책임지겠습니다.**



(주)금강축산유통
Keum Kang Livestock Distribution Co., Ltd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2626-3번지

본사 · 공장 : (064)713-3010 FAX : (064)713-3100